

## 정체불명의 급여지급. 회사와 노동조합은 무엇을 숨기는가?

### 정체불명의 급여

지난 해 12월 24일, 정기급여일인 이 날 많은 직원들이 별도급여 계좌를 통해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낸사람의 이름은 ‘KT보수’라고 되어 있었다. 이 돈을 지급받은 직원들은 그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본사 급여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노동조합에 문의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러저러한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다.

도대체 급여를 지급하고도 그 내역을 회사측이 설명할 수 없다면 거기에는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소문에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무급휴일근로와 반납된 연차휴가수당 등이 지급된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러나 모 언론사에서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회사측의 공식답변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처분 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 떼먹은 돈?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석채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작년 9월 20일자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이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일 뿐이다. 회사측이 민법상 직원들에 대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회사는 노동력을 지급받았기에 떼먹은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며, 거꾸로 직원들은 떼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내역 중에는 당초 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이외에도 직책수당과 직무환경수당 등을 초과 근무수당과 초과근무가산금 등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아 해당 직원들에게 수십억원을 미지급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KT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

121223예금입금		119
121224전자기타	KT 12월 급여	208,000
121224전자기타	KT보수	118,470

거래일시	적요	보낸분/받는분	출금액	입금액	잔액	송금액모	거래장
2012.12.24 17:29:51	TOP 급여	K T보수	0	126,690	-18,453,193		K T
2012.12.24 05:17:51	급여입금	K T급여	0	247,000	-18,579,883		K T

▲ ‘KT보수’라는 항목으로 입금된 정체불명의 급여액! 과연 이 돈의 장체는 무엇일까?

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부분적으로만 공개 발표하였던 상황은 이제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회사와 노동조합은 답해야 한다!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KT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2004년7월부터 사실상의 무급휴일근로가 수시로 자행되어 왔다.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내놓고도 관리자들의 압박을 받아 출근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긴급출동비와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빈번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면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1주일이면 미지급된 무급휴일근로수당 등 회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근무표와 업무

처리내역 그리고 급여내역 등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는 촉구한다!

비록 민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주5일제가 시행된 2004년7월 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 전체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채부를 받아낼 수 없다면 가까운 조합비만 축내지 말고 당장 총사퇴하기 바란다. 당기 순이익 1조 이상 내는 기업에서 조합원들의 임금채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노조집행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여내역도 설명 못하는 회사 측과 정윤모 집행부는 답하라!

## ●●● 신년사

조합원 여러분. 어김없이 새해는 다시 밝았습니다.

2012년의 마지막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과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조합원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절 KT내에서 민주노조가 무너진 뒤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근로조건속에서도 회사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악한 노동조합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조합원 여러분 스스로의 힘만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당장이 힘들고 민주노조 복원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해서, 희망과 신념을 잃고 회사에 굴복하며 스스로에게 매몰되지 말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야말로 KT에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저희 KT전국민주동지회는 위 우화에 나오는 인디언의 자세로 KT에 민주노조를 다시 세울 때까지 항상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김석균 올림

##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부대회를 노조정상화 출발로 삼자!!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부대회가 2월1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이미 노조집행부 선거가 2011년12월에 치러진 마당에 그리고 지난 대선의 결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지형이 형성된 마당에 대의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대의원 선출 없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매년 지부대회에서 전국대의원을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것도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현장조직인 KT전국민주동지회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9년3월에 개최한 대의원대회에서 김구현집행부가 전국대의원 선출을 간선제로 개악시킨 것을 민주동지회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2010년7월 시정조치 명령을 이끌어내 직선제로 2010년10월 원상회복시켰었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동지회의 대의원 직선제 사수를 위한 법적투쟁이 없었다면 어용집행부는 곧바로 위원장의 대의원 간접선출이라는 위원장 간선제(일명 체육관 선거)를 도입하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회사측과 어용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간선제 기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2011년10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번에는 선거를 감시하는 참관인을 소속 지방본부로 제한하고, 조합원이 2009년12월말 특별명퇴로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투개표소를 거꾸로 3년전 489개소에서 698개소로 더욱 잘게 쪼갠 다음, SNS 등 인터넷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고 공유되는 것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삽입하여 개악하였다.

2012년4월에 실시한 본사 노사협력팀이 주관한 팀장 집합교육 녹취록에 의하면 회사측이 분리투개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통합투개표를 반대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대의원 출마와 후보등록은 별도의 조합원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회사측의 방해가 있어도 본인의 의지만 강고하다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용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회사측에 대해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꾸로 대다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낙하산 CEO의 연임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최후의 보루인 자산(전화국 건물 등)을 매각하는 행위와 직원들을 잔인하게 쫓아내는 CP 퇴출프로그램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역적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이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제어할 수 있는가?

답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매년 실시하는 대의원선거에 상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전체 지부에 출마하여 상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동지회 특별위원회인 KT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KT노민추)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에 전면적인 조합비 공개와 임금체불 전액 받아내기 그리고 낙하산 반대와 자산매각 반대 등을 내걸고 전국에서 대의원 후보에 출마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이다.

KT노민추는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스스로 박탈하고 새로운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방식('KT새노조'의 노선)은 노동자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KT의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반대한다. KT노민추는 끝까지 조합원 대중과 동고동락할 것이며 복수노조 노선이 아니라 조합원의 힘을 통한 현 노조의 민주화라는 길에 매진하고자 한다.

우리의 길은 조합원의 힘으로 KT노조를 민주화시켜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5년간의 CP 철폐투쟁, 그 종지부를 찍다!!

### 역사적인 판결이 나다

올해 1월 8일 법원은 KT에서 자행한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KT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된 CP비밀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최초로 파면(2008.10월)되었다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2009.5월)했던 충북의 한미희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KT가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6개월만에 그리고 CP비밀퇴출 지침 문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5년만에 법적으로 cp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동안 CP관련 문건은 2008년1월부터 총 다섯 차례나 공개되었지만 그 때마다 회사측은 실체를 전면 부정하며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발생된 피해자들의 증언과 본사에서 cp대상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관리자의 진술이 나왔고, 현업에서 이를 실행하였던 관리자와 본사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작성하였던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이 줄을 이으면서 cp 퇴출프로그램의 진실은 명백하게 폭로되었다. 어쩌면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 법원판결의 의미

그럼에도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파급효과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KT와 같은 흑자기업이 변형된 정리해고 수단으로 퇴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만약 법원이 KT의 비밀퇴출프로그램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면 과연 어느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정리해고를 하겠는가? 간단히 퇴출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해고를 자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다.

둘째,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본사의 지시에 의해 시행된 CP퇴출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법원이 최초로 공식화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그를 CP로 지정하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된다.

기존에 하던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전환배치한 후 업무부진을 이유로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 그리고 경고장을 남발하며 최종적으로 파면과 퇴출을 목표로 하는 과정은 그로 하여금 KT내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여야만 감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인간학대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KT의 퇴출프로그램은 두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가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인간학대 과정(전환배치, 감시, 따돌림, 면담, 비연고지전보, 징계 등)을 통해 이중삼중의 소외감을 불러일으켜 퇴출을 압박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고과연봉제라는 제도를 통해 CP대상자에게는 인사고과를 무조건 하위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삭감을 통해 퇴출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원퇴출프로그램의 시행을 용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노동인권의 후퇴를 초래하게 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세째, 일자리의 측면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P퇴출프로그램으로 유명무실화 되었던 정년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네째,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직원들을 부당하게 퇴출당하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KT의 현실에서 이에 맞서 적극 대응해야 할 노동조합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CP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무급휴일근로와 연차휴가 반

납 등을 강요받아 왔고 결국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각종 위법사례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강도와 실적부담이 강화되면서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작년 1년간만 56명(재직자29명, 명퇴자23명, 사내계열사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KT노동조합은 실태조사에 나서기는 커녕 식물노조처럼 모르쇠로 침묵하였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분명히 있음에도 cp퇴출프로그램과 같은 부당행위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그나마 KT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나서서 조합원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KT내부를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인가 라는 물음을 근본적으로 던지게 하고 있다.

### ‘인간다운 KT’ 를 위하여

요즘 이석채 회장이 프로야구 구단을 KT로 유치하면서 천문학적인 거액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려면 그동안 무급휴일근로 등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것부터 전액 지급하고 각종 노동인권 탄압을 당장 중지한 후에 추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수백억원을 쏟아부어 프로야구단을 창단한다 해도 KT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가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CP퇴출프로그램과 관련된 청주지법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첫째, 이석채 회장은 CP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CP퇴출프로그램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고 박근혜 당선인의 법치를 KT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

셋째, 회사는 희생자들의 회복 프로그램과 물질적 정신적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CP철폐를 외면하고 있는 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는 책임지고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KT 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

### CP비밀퇴출프로그램 관련 사건일지

- 2005. 4월 본사에서 CP명단 1,002명 작성 (매년 업데이트 함)
- 2006년초부터 CP비밀퇴출프로그램 시행
- 2006년 전사적 퇴출 목표 500명 선정 시행
- 2007년 전사적 퇴출 목표 550명 선정 시행
- 2008. 1월 익명의 관리자가 우편으로 조태욱에게 CP퇴출프로그램 문건(첫번째) 발송하여 공개
- 2008.10월 충북 한미희 조합원 파면(CP퇴출프로그램에 의한 최초 해고자 발생)
- 2009. 2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한미희 부당해고 판정
- 2009. 4월 중앙노동위원회 한미희 부당해고 판정
- 2009. 5월 한미희 조합원 원직복직
- 2009. 5월 한미희 조합원 케이트를 상대로 CP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2009.12월 국내 단일기업 최대 정리하고 5,992명 퇴출
- 2010. 1월 대구 김옥희 조합원 해임(CP퇴출프로그램에 의한 두번째 해고자 발생)
- 2010. 7월 수도권서부본부 안모 전지점장으로부터 유출된 퇴출프로그램 (두번째) 문건 조태욱 공개
- 2011. 4월 충북 반기룡 전팀장 양심선언으로 퇴출프로그램 시행 문건(세번째) 폭로
- 2011. 5월 김옥희 조합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 2011. 6월 청주지법 한미희 손해사건 1심 기각판결 (CP존재 인정하였으나 인과관계 불인정)
- 2011.12월 본사 문모 부장이 작성한 1,002명 CP명단 파일 조태욱 입수 공개(네번째)
- 2011.10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작(1차~3차)
- 2012. 5월 고용노동부 KT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무급휴일근로 등) 발표
- 2012. 9월 고용노동부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운영 사실 최초 인정
- 2012. 9월 본사 박찬성 전팀장 본사 전담팀에서 작성한 CP문건(다섯번째) 양심선언 폭로
- 2013. 1월 청주지방법원 한미희 손해청구 소송에서 CP에 의한 해고로 인정한 판결 함

☞ CP비밀퇴출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는 KT노동인권센터에서 2012.12월에 발간한 KT노동인권백서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백서를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KT노동인권센터 (02-701-0070, 010-3310-56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어용노조간부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지난 2009년 MB정권의 낙하산 이석채회장과 함께 등장하였던 김구현 노조위원장은 2011년말 명예 퇴직한 이후 지금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 ○ 김구현의 행적

김구현은 11대 KT노조위원장 직을 수행한 첫해인 2009년3월, 전국대의원선출을 조합원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규약을 통과시키며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하였다. 곧이어 5월에는 조합원들을 무한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고과연봉제를 노사합의라는 허울좋은 형식을 통해 도입하더니, 그 해 7월에는 민주노총을 탈퇴하며 KT노동자들의 연대고리를 스스로 차단시켰다. 그는 2009년 연말에는 국내 단일 기업으로 최대 기록인 5,992명을 퇴출시켰던 회사측의 강제 명예퇴직을 합의해준다. 2010년도에는 팀별성과급제의 도입을 합의해주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수시로 일방적인 전환배치가 이루어져도 수수방관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조합원들 죽음으로 내몰렸다. 김구현의 노조위원장 재임기간 중 이석채회장이 주도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노동조합은 거수기에 불과하였다. 그 기간 동안 실질임금 또한 삭감되었음을 조합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가 도입했던 전국대의원 간선제는 민주동지회의 노동부 진정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제17조 위반으로 판정한 결과 직선제로 다시 원상복귀되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명령 2010.7.23) 그리고 비밀에 부쳐졌던 2009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또한 민주동지회의 노동부 진정으로 2010년 4월에 공개된 바 있다. 2009년 민주노총 탈퇴결정이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 약화기도에 따른

것이었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 KT노동자의 고향을 팔아넘긴 댓가?

어쨌든 그는 노조위원장 재직시절 회사측의 의도대로 자발적 협조?를 해 준 댓가로 지금 KT수련관들을 관리하는 업체인(주)코웰스의 회장이 되었다. 이석채회장의 파트너였던 김구현이 어떤 자격이 있어KT관련업체의 회장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조합원의 고향을 팔아넘긴 댓가를 회사가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전체 조합원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 밖에도 2011년12월 선거때 정윤모 집행부 탄생을 도운 후 역시 2011년말에 명예퇴직한 강북위원장 김태호와 대구위원장 김근주 그리고 강남위원장 이현광은 모두 사내계열사인TTS지역본부에서 주요 간부직을 맡고 있으며, 전남위원장 임종대는 재적전 출하여 자회사 KT렌탈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다.

이쯤 되면 현 정윤모 집행부의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환히 내다보게 된다.

노동조합 간부직을 맡고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그 대가로 명퇴후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어용노조 간부들의 행태를 보며 이제 조합원들은 노조정상화의 꿈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실감하게 된다. 노동자이기를 포기한 조합간부들의 호위호식이 한순간에 불과하고 그 종말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 조합원들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2013. 1. 21.

KT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 민주파활동가에 대한 탄압인 이해관, 유덕상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 KT사측이 또 다시 부당징계로 노동자를 해고했다.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유덕상 전 KT 5대노조 위원장을 해임조치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이들이 KT내에서 회사의 잘못을 내부비판자로서 고발하고 민주파활동가로서 활동해온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다.

■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인 KT 새노조를 결성해 사측의 낙하산 인사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사측과 대립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KT가 주관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서비스'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KT는 이 전화투표 서비스를 국제전화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전화였다는 것이다. 얼마전 감사원에서 국제전화 아님에도 001이라는 번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폭로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 그러나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서 출퇴근에만 5시간이 걸리는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채 행정소송을 내며 버텼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31일 '무단 결근, 무단조퇴'를 사유로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 위원장이 허리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공익제보자 시상식 참가를 위해 1시간 일찍 조퇴를 신청한 것조차 '무단조퇴'로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 7대경관에 대한 공익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참여연대의 '의인상' 등의상을 3차례나 수상한 바 있다.

■ 한편, 사측은 대선 직후 유덕상 전 KT 5대노조위

원장도 해고했다. 유 전 위원장은 누적된 각종 지병이 호전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했다. 사측은 유 전 위원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후보 선본에 결합해 KT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낙하산 인사의 문제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과실죄를 적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 KT가 이렇듯 민영화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과 노동탄압과정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활동가를 탄압해 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특히 KT민주동지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집요한 탄압을 지속해왔다. 징계나 체임발령, F등급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을 안받아본 민주동지회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KT 내에서 노동인권 말살 경영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유일한 조직이 민주동지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동지회는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서 결국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끌어내었고 이석채회장 아래서 자행된 온갖 노동법 위반이 부분적이거나 시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CP프로그램이라는 야만적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혀내어 KT에서 강제적인 퇴출을 이제 손쉽게 시도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었다.

■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지난 2011년도에도 2명의 민주동지회 회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 노동위원회 결정 및 소송승소를 통해 원직복직을 쟁취했었다. 이번에도 KT 민주동지회는 두 동지에 대한 해고조치에 맞서 그 부당함을 알리고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KT내에서 불법경영에 반대하며 통신평공성을 주장하고 노동인권을 방어하는 활동을 중단없이 전개할 것이다.

## 소식보고



### 류방상 동지에 대한 회사의 1억손배소 기각 판정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KT가 민주동지회 회원인 류방상 동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KT는 지난해 8월 “사실을 왜곡해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류씨에게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류방상 동지는 지난 2011년도 3월 11일 열린 KT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던 과정에서 회사측의 ‘납치기도’ 까지 포함된 방해를 받았고 이를 폭로한 바 있다. 이 폭로에 대해 회사가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KT 민주동지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회사의 1억원 손배소에도 당당히 맞섰던 류방상 동지의 투지에 찬사를 보낸다.

## 알림

### 정년퇴임식 개최

95년 김영삼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선 KT 민주노조의 투쟁이었던 이른바 ‘한통사태’ 때 노조중앙본부 비대위 조직국장 겸 통신망 지부장을 역임하였던 이은중 동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한 정용철 동지의 정년퇴임식이 작년 12.20 일 저녁 명동에서 가족들과 민주동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전남에서도 유상희 동지의 정년퇴임식이 12.22일에 광주노동자교육센터에서 가족들과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故 정찬연 동지 2주기 추모제



### 故 정찬연 동지의 2주기 추모제

KT 전국민주동지회 회원으로 2011년 1월 14일 업무중 교통사고로 순직한故 정찬연 동지의 2주기 추모식이 2013년 1월 20일 전남 광주 영락 제2 추모관에서 가족과 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2013년 희망버스의 새로운 출발



2013년 첫 주 토요일인 1월 5일, 민주노총과 각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리하고·비정규직·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가 2013년 희망버스 "다시, 희망만들기"의 재시동을 걸었다. 전국에서 30여대가 넘는 버스를 타고 모여든 2천 오백여 노동자, 시민들은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인 울산과 부산 한진중공업을 방문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냈다.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 실패로 절망과 낙담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의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뜨거운 양심들을 새로운 연대로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2011년에도 네 차례의 희망버스 대열에 함께 하였던 민주동지회는 2013년 새로 시작한 희망버스에도 함께 탑승하였다.

이날 희망버스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에 맞서 고압송전탑에서 81일째 고공농성장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최병승 천의봉 동지와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에 먼저 도착하였다. 울산 집회에서 팔순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희망버스 대열에 참석한 조희순목사의 발언은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조목사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인 70년대 인천 동일방직에

서 순박했던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사수하며 구사대의 폭력에 맞서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현장 상황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며 우리가 어떠한 결의로 현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말씀하시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농성중인 송전탑 옆을 지나가는 철도차량의 기관사 노동자들은 연대의 의미로 항상 경적을 울린다고 한다. 이날 집회 중에도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기차가 기관사들의 마음을 전하며 노동자들간의 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천의봉 동지가 고공철탑 농성 중에 기록한 일기장을 육성을 통해 직접 낭독하고 최병승 동지가 자신의 결의를 직접 밝히는 모습에서 엄청난 고통에도 유연함과 투쟁승리의 낙관성을 잃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희망버스는 부산의 한진중공업으로 이동하였다. 정리하고 뒤 2년 만에 복직하였지만 복직 4시간만에 곧바로 휴직발령을 받고, 회사의 손배가압류와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진故 최강서 열사를 추모하고 한진중공업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아침 회사측은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故 최강서 열사의 죽음이 개인적인 생활고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하였다고 한다. 개인적인 죽음에 여당 원내대표 등이 왜 조문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회사측을 향해 숨진 지 16일째이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부인)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모든이의 가슴을 적셨다.

이렇게 2013년 희망버스는 눈물로 함께 시작하였다. 무엇으로 2013년 희망을 말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따뜻한 가슴과 하방연대만이 희망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